



2022년 6월 26일(제1094호)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니 기도가 향하는 길”

기도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들 기도 내용을 한번 봅시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기도 내용 한번 살벌합니다. 당연히 안 들어주셨지요.

기도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길이 필요하고 선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 엄마 아빠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또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짝 각이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협상이 가능한 부분인가, 어떻게 말해야 이분이 내 말을 들어주실까 하고 말이지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부탁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심은 내가 하느님과 얼마나 친한가, 하느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과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 얼마나 닮아 있는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전략인 것이지요. 들어주실 기도 내용을 고르는 것부터 들어주시게끔 기도하는 것까지 전부 다 전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느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연예인을 보듯이 열광하고, 기뻐하면서 하느님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실제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별령 넘어진다고 증언합니다. 고개를 땅으로 박는 것이지요. 그 대단한 모세에게도 하느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곧바로 보면 죽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당신께 “당신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묻자 “나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서 별령 뒤집어 넘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느님의 격의

차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막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갈 안정적인 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고 하지요. 하느님을 만난 자신의 얼굴을 사람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너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님에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평범한 우리가 하느님께로 다가갈 방패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 선봉에 서있는 분이 바로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께서 앞장서서 하느님을 만나고 계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고 계시는 덕분에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교황님과 함께하는 이 전체 교회가 그것을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미사 중 평화의 인사 전 사제가 하는 기도문에 ‘저희 죄를 해아리시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보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끄는 교황님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느님을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과 방패를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이 교회와 교황님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서는 못 배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바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김부수(프란치스코) 신부
희망(제11기동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1열왕 19,16나-19-21
회 답 송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제 2 독 시	갈라 5,1.13-18
복음 변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 음	루카 9,51-62
영 성 재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상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스펠링 번째 시한(마지막 회유보)

우리 사랑하온 제형들아, 알지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내려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로조차 성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나게 하신지라.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할 지니, 예수 승천 후 종도(宗徒)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성교 두루 무수 간난(艱難) 중에 자라니, 이제 우리 조선이 성교 들어온 지 50~60년에 여러 번 군난(窘難)으로 교우들이 이제까지 이르고, 또 오늘날 군난이 치성(熾盛)하여 여러 교우와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너희들까지 환난(患難) 중을 당하니, 우리 한 몸이 되어 애통지심(哀痛之心)이 없으며, 육정(肉情)에 차마 이별하기 어려움이 없으랴.

그러나 성교(聖敎)에 말씀하시되 ‘작은 털끝이라도 주께서 돌아보신다’ 하고 ‘모르심이 없어 돌보신다’ 하였으니, 어찌 이렇듯한 군난이 주명(主命)이 아니면 주상 주벌(主賞主罰) 아니라. 주의 성의(聖意)를 따라오매, 온갖 마음으로 천주 예수의 대장의 편을 들어, 이미 항복받은 세속·마귀를 칠지어다.

이런 황황(惶惶)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다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 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부디 서로 우애(友愛)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를 붙잡히 여기사 환난을 앓기까지 기다리라.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위주 광영(爲主光榮)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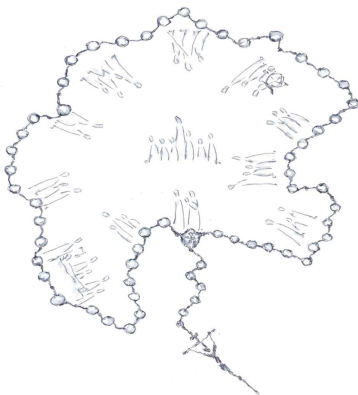
여기 있는 자 이십 인은 아직 주은으로 잘지내니 설혹 죽은 후라도 너희가 그 사람의 가족들을 부디 잊지들 말라. <다음 주에 계속>

『상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상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저희와 함께



여기 이렇게
작은 정성 모아
님과 함께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소서.
이들과 함께하소서.

상화이야기

시스템 상모지



길이가 3미터에 달하고 하부의 두 천사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그림은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자신의 삼촌 교황인 식스투스 9세를 위하여 의뢰한 그림으로, 후에는 폴란드의 아우구스투스 3세가 그림의 아름다움에 구매하여 자신의 궁정에 전시해 유럽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드레스덴의 대폭격을 받아 거의 파괴 직전까지 가게 되었으나, 소련군이 이 그림을 모스크바에 가져갔고 전쟁 후 다시 드레스덴에 돌아와 전시되게 된다.

구름 위에서 계신 아름다운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보위하고 있는 두 성인은 식스투스 성인과 바바라 성인으로, 두 성인이 커튼을 열고 우리에게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

라피엘로, 1512년 작
캔버스 위 유화, 265 × 196cm(104 × 77in)
드레스덴 미술관, 독일

이 그림은 그 후 하단에 그려진 두 천사 이미지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그림으로, 수많은 미학자들의 찬탄을 받는 명작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3주일: 찬양대 박건희 신부

◆ 교구장 동정

- 칠성대(육군군수사)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26일(주일)
-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 영명축하 내방
 때: 6월 27일(월)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상제상시로 기쁨나는 삶” - “니를 먹는 사람도 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